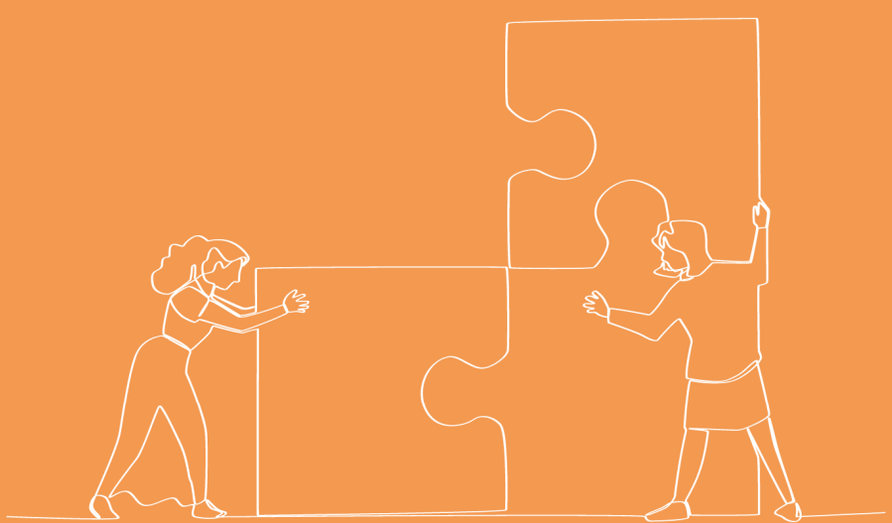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선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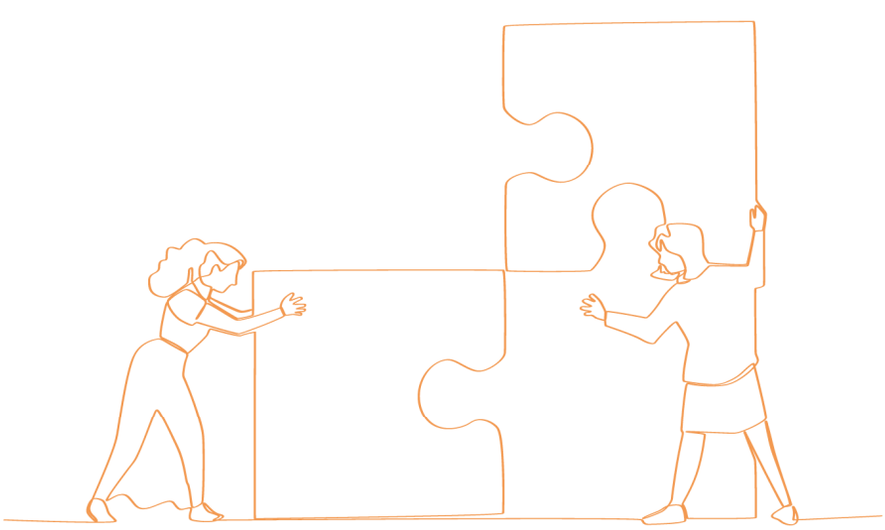
3-2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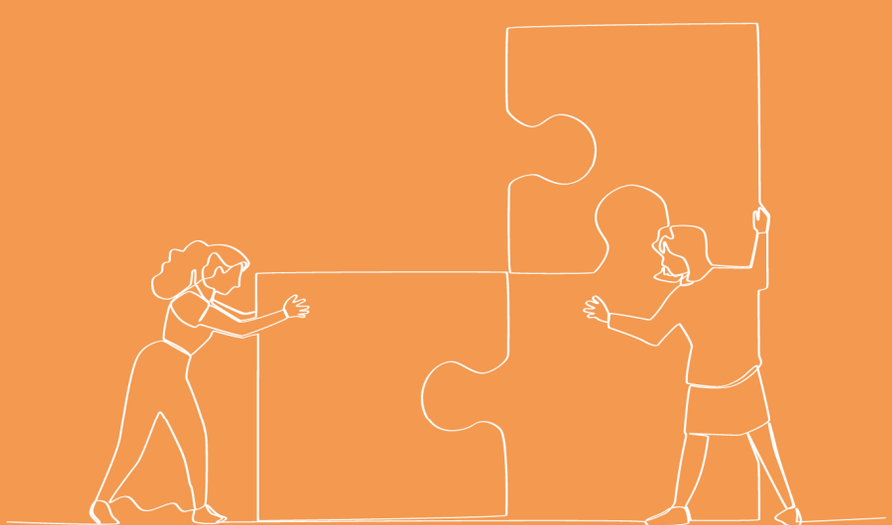


3-2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



3-2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3 제2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18~21]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연계)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우선 현대 소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소설을 읽는 데에 오래 걸리거나, 소설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읽으면 잘 읽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읽는 방법'을 많이들 묻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을지 몰라도 '방법'은 고작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그런 방법이 모든 지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주세요. 잘 읽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현대 소설을 읽는다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읽는 방법들이 있다면 이것 역시 소설 속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방법적인 것들은 부수적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소설 독해력을 키우는 데 치중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잘 읽는 방법'을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기출 분석 시,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소설의 경우, 사후적으로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해보려고 애를 써 보세요. 특히 행위나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즉 사후적으로 지문을 뚫어보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양치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은 하나를 깊게 뚫으면서 소설 독해력을 키우려는 노력이고, 양치기는 다양한 지문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냥 읽는 게 늡니다. 그럼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소설을 읽는 데에, 무조건 적용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쓰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지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귀엽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사고를 쳐본 적이 있나요? 한 번씩은 있으시겠지요. 저는 과거에 하도 장난꾸러기여서... 이런 일이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굳이 얘기해보면, 제목은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될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무교이지만 저희 집이 불교인데, 절 가면 맨날 풀만 나오니까 어렸을 땐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집 앞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엄청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스파게티랑 피자를 맨날 먹을 수 있대요. 솔직히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티셔츠를 나눠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티셔츠 색깔이 기억납니다. 하늘색 티쳐츠였고요. 티에 '여름 성경 학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반겨주시고요. 차를 태우시는 겁니다. 당연히 어디가냐고 물어봤지요. 스파게티랑 피자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가지 인지하셔야 되는 건, 당시는 낭만의 시대였고요, 초등학생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꽤 오래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피자랑 스파게티 미친 듯이 먹고 캠프파이어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거 듣고 아무 생각없이 있다보니까 밤이 됐어요. 집에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하루 자고 간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잤습니다. 집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겠지요. 지금부터는 저희 엄마 입장에서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다음날 낮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여름 성경 학교 티셔츠를 입고,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왔으니까) 걸어가고 있었지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뭐 뒤지게 맞았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여름 성경 학교 티셔츠 입고, 심지어 그 티셔츠에 스파게티 양념 잔뜩 묻혀놓고 신나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화나서 교회가서 목사님께 따지고 있고, 목사님은 애가 그냥 와서 당연히 허락받은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답답하네요ㅋㅋㅋㅋ 지금 막상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딸이 그랬으면 나 진짜 숨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엄마한테 괜히 미안하네요. 아무튼! 저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즉 장독대를 깬 아이의 심리가 납득이 되신다면 아마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무리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문 독해는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에서 말씀드리면서 연계까지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방식이죠. 서술자의 시각과 인물의 시각. 사실 각 잡고 〈보기〉 문제로 나오면 정답률이 항상 낮은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24 수능 골목 안 〈보기〉 문제도 그랬고, 25학년도 6월 모평 아버지의 땅 27번 문제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미스터 방 보기 문제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아져서 이걸 다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시각'에 대한 것은 너무 일반화해서 타이트하게 알아두시면 시험 때 더 헷갈려요. 선지에서 제시된 걸 보고 하나씩 따져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겠지요. 서술자의 '시점'과 인물의 '시각'은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용어와 시각이라는 용어는 구분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요즘 서술자의 시각과 인물의 시각이 겹쳐 나타난다는 말이 되게 자주 출제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서술자의 시각인지 인물의 시각인지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24 수능 골목 안 〈보기〉에서는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가 인물과의 거리를 조절한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고요. 2506 아버지의 땅에서는 27번의 5번 선지죠.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라는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무튼 결론입니다. 이걸 모든 경우를 정리하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때그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① ㉠: '나'가 앞서 지각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모습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이거 따질 때 '나'가 있나 반드시 안 찾아도 돼요. 그냥 1인칭이면 맞는 겁니다. 1인칭은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있죠. 그럼 그냥 맞는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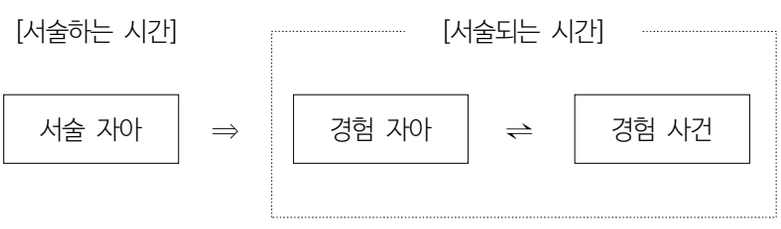
②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나'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오오, 하느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게 사실 애가 한 말 같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생각이지 발화 아니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하셔야죠. '내 혼잣소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었다.'라는 진술이 있으니까, 진짜 저런 혼잣말을 했나보다 하셔야 되는 선지예요.

③ ㉢: '나'가 사건을 경험한 시간과 이에 대해 서술하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 이거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다른 방식을 보통 회상이라고 합니다. 서술하는 시간의 자아를 서술자아, 서술되는 시간의 자아를 보통 경험자아라고 합니다. 교육청에 유년의 뜰이라는 지문에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다른 방식을 보통 회상이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라는 서술은 서술하는 시간, 즉 서술자아의 서술이죠. 쉽게 말해 서술되는 시간과의 간격을 보여 주는 겁니다.

| 보기 |



④ ㉣: 사건에 대한 서술을 과거 '나'의 시선으로 제한하여 당시의 심경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건 사실 현재의 '나'의 시선같기도 하고, 잘 보면 과거의 '나'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과거 '나'의 시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답입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따져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뭔가를 정리해서 그 틀에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⑤ ⓔ : 합리적이지 못한 대응 방식을 서술하여 '나'의 미성숙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독을 깨고 나서 주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귀엽기는 한데, 이게 독을 다시 붙여주지는 않겠지요. 비합리적인 대응이면서 미성숙한 면모를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

세부 일치입니다. 단언컨대, 이걸 틀리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꽤 잡아 먹을 겁니다. 특히 문학 좀 치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더 귀찮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부 일치는 기억으로 지우고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걸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귀찮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괜히 늘어지는 기분 들고. 저도 모의고사 출제를 하지만, 이런 문제가 출제자와 학생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건데, 시험장에서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끄니까 짜증나고, 그와중에 선지 한 두 개가 꼭 헷갈리거든요. 제가 고전소설에서 자주 설명하는 것 중 하나를 선지를 해설하며 말씀드릴텐데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① '나'는 ~~넘어지는 빠루를 순간적으로 붙잡으려 했으나 실패하여 허탈해한다.~~

-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특히 고전소설 세부 일치 판단할 때 '그런 적 없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그런 적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이런 판단에 익숙해지시면 사실 확인할 때 좋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적이 없어서 틀린 경우, 시간에 쫓기거나 마음이 급할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는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맞거나 아니니까 판단이 선명한데, 그런 적이 없는 것은 사실 '공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때 시간에 쫓기는 등 여러 가지 이슈로 뭉개게 되면 사실 자신의 주관으로 이 공백을 채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선지가 그럴듯해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적 없음'이라는 판단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런 적 없지 않나? 하고 일단 제끼는 거죠. 실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② '나'는 ~~누군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지를 바깥에 꺼내 두었다고 확신한다.~~

- 네. 이것 역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지나 않았는가 하고 의심한 적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누가 꺼내 두었다고 확신하는 상황은 없어요.

③ '나'는 ~~눈앞의 현실을 환상으로 치부하며 단지가 깨진 사실을 부인하려 한다.~~

- 네. 이것 역시 그런 적 없습니다.

④ '나'는 ~~단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 뒤 용서를 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한다.~~

- 네. 이것 역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익숙해지면 그런 적 없지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⑤ '나'는 주변에 쌓인 눈을 이용하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낀다.

- 중략 이후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죠. 답은 5번이 되네요.

20.

이것 역시 ⓐ 피로감 ⓑ 불길함 ⓒ 지루한 예감 이것들에 대해 서술자 '나'의 심리를 추론해보는 것이지만, 말이 그렇지 결국 사실 확인입니다. 선지를 보고 지문 돌아가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기억으로 바로 쳐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19번 문제랑 비교해보시면 성격이 좀 다릅니다. 19번은 그런 적이 없어서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20번은 확인해보니 그게 아니라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① ⓐ는 '나'로 하여금 특정 인물을 연상하게 하는 동시에 ~~그의 행위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한다.~~

- 피로감을 통해서 고물 장수 순심이 아저씨의 피로감을 떠올리고 있으니, 연상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요.

② '나'는 ⓐ가 단기간에 발생한 것에 주목하여 ⓐ가 당시의 정신 상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 피로감은 오히려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 상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은 아니지요.

③ ⓐ가 ⓑ를 내포한다는 '나'의 생각은 자신의 나이 대에 ⓐ를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 이것 역시 돌아가서 확인하셔야 선명해집니다.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 일단 피로감이 불길함을 내포하긴 할 겁니다. 다만 선지 뒷부분은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④ ⓑ는 자신이 떠올린 방법으로는 ⓐ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나'의 확신을 보여 준다.
- 선명하게 규명하려면 결국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로 돌아가서 그 뒤까지 좀 읽어줍시다.

>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 가며 쥐어짠 두어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

박탄-D는 어떤 음료일 겁니다. 저는 아니까 이게 카페인 음료인데, 결국은 이것을 짜낸 것으로만은 이 피로감을 해소할 수 없을 것. 쉽게 말해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문에서 피로감이라는 것은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고 했지요. 아이가 불길함을 왜 느낍니까? 뭘 하든 이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서 그런 겁니다. 답은 4번이 적절합니다.

⑤ ⓒ는 ⓐ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데 따른 '나'의 고립감을 부각한다.
- 지루한 예감 자체가, 나의 고립감과는 관련이 없는 소리입니다.

21.

개인적으로 가장 잘 낸 문제. 정확히는 되게 깔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 확인에 가까우나, 소설 독해력이 어느 정도 전제된 사실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죠. 소설을 잘 읽었다는 건 최소한 답 선지를 봤을 때, 엥?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러 갔더니 선명해진 것입니다. 이 정도는 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셨으면 합니다. 굳이 문제의 가치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소설은 심리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소설에서는 정말 중요한 장치거든요. 이걸 그대로 건드려준 문제라 연계 학습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듯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렸다는 데에서, 은폐한 사건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며 불안해하는 인물의 심리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부각되고 있군.
- 이걸 보자마자 이상하게 느꼈는지 아니었는지가 결국 소설을 얼마나 잘 읽어주었냐의 핵심입니다. 이 선지 판단으로 본인이 잘 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문의 '이미 아홉 가구의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 양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 부분은 아직 이 아이가 사건을 은폐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점점 불안해지다가, 결국 눈을 보고 아 장독대를 눈으로 덮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애초에 아직 은폐한 적이 없는 겁니다. 소설을 잘 읽었다면 5번 선지를 보자마자 음? 하고 돌아가서 확인한 후 선명해졌겠지요. 정말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우선 실전에서 얼마나 소설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계까지 싹 털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왕 소설 하나 보신 김에 연계까지 얻어가면 너무 좋겠지요. 시간도 아끼고요.

1) 실전

우선 실전에서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초반에 읽을 때 좀 눌러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잡히면 알아서 '가속'(빨라지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지춤을 추스르며 김장독을 가지런히 묻어 둔 곁을 어정어정 걸어 나오다가 발끝으로 눈 덮인 가마니때기 밑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밟았다. 가마니때기 속에 발을 담근 채 눈을 푹 뒤집어쓰고 벽에 기대 있던 그 기다란 물체는 고개를 발딱 젖히는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눈이 털려 나간 그 물체는 공사판에서 쓰는 빠루라는 연장이었다. 어른 엄지보다도 굵은 그 기다란 쇠뭉치는 지렛대로 쓰였는데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져서 대못 같은 것을 빼는 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빠루가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마한 짠지 단지를 스치자 뚜껑은 두 동강이 나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좌악 그어졌다. 금은 갔지만 그 짠지 단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시금털털한 김치 냄새를 풍기는 국물이 쨀끔쨀끔 새어 나오고 있었다.

- 바지춤을 추스르는 걸 보니 뒷간에 갔다온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암튼 걸어 나오다가 빠루를 밟았고, 그 빠루가 쓰러지면서 짠지 단지를 타격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공교롭게도 사고를 친 겁니다. 독이 깨졌고 국물이 새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차분하게 읽으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리는 당연히 보편적인 선에서 결정됩니다. 당황스럽겠지요.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헐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다. 피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다. 기절이라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뭔가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붙었다.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변소에서 오줌보를 비우고 돌아서기까지 나는 너무나 생생했고, 빠루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까지 불과 십여 초가 흐르는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피로감이란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되는 피로였다.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 몇 해 전 길게 뻗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 가며 쥐어짠 두어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고물 장수 순심이 아부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러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 그랬을까?

- 심리가 바로 제시가 됩니다. '피로감'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바로 심리적 피로가 밀려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절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럼 면피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피로감은 근데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결국 절망감까지 가져오죠. 피로감 - 불길함(불안함) -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심리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별 것 없습니다.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의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니임에 틀림없음에랴! 이 베락 맞아 뒈질 놈의 아새낄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쟁쟁해지자 등 뒤에서 올라온 뜨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께를 휩싸며 치솟아 올라 추운 줄도 몰랐다.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서 사라져 줄 리는 만무했다.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와 매타작을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싶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첫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재겨 딛고 가느라 우리 집 앞에서 변소 앞까지 뚜렷이 파인 눈 위의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는 터였다. 이미 아홉 가구의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 양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다. 우랑바리나바롱나르비못다라까따라마까뿌라냐…….

- 하필 욕쟁이 할머니 단지였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아시죠? 꼭 일이 안 될 땐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무서운 할머니의 단지를 깬 겁니다. 점점 불안함이 극도에 달하죠. 심지어 증거 인멸도 불가능합니다. 발자국이 정확히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문을 외웁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이해하면 너무도 납득이 됩니다. 독을 깼는데 하필 가장 무서운 할머니집 거고, 심지어 증거 인멸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으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사실 가속 구간입니다. 아까 느꼈던 피로감, 불길함, 절망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홱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렸다.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의 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손이 한 번 닿을 때마다 흙 알갱이가 알알이 박힌 눈덩이들이 붙어 올라왔다.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 놓았다. 그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왜 소설의 제목이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인지 알게 해주는 문단입니다. 갑자기 기가막힌 생각이 납니다. 원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죠. 눈으로 이 단지를 덮는 겁니다. 아이치고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어른들은 다 압니다. 이거 눈사람 만들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가 한 짓이죠. 아무튼 눈사람을 만들고 위기를 탈출합니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읽은 것과 비교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방법이 아닙

니다. 그냥 시험 때 차분히 읽고 이렇게 상황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소설도 이해보려고 하셔야 하고(기출 분석) 양치기도 하면서 소설 감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연계

현대소설 연계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지문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줄거리는 보셔도 좋습니다. 단, 전체 줄거리를 외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외워봤자 수능 날 다 휘발됩니다. 물론 기억나는 작품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지문을 처음 봐도 읽고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연계 공부를 통해 아는 내용으로 선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계는 부수적인 수단이자 보조적인 도구일 뿐, 결코 실전에서 연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읽고, 지문 전반적인 틀을 잡은 후, 차라리 수특에 있는 지문을 정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상 모의고사 〈중략〉 이전은 수특 내용과 겹칩니다. 그리고 〈중략〉 이후가 수특에 없는 부분이고, 〈중략〉 이후의 뒷 내용이 수특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략 이전〉(상상, 수특) - 〈중략 이후〉(상상) - 이후의 내용(수특) 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한 세상에 대한 깨달음과 성장	
전체 줄거리	성인이 된 '나'는 재개발을 앞둔 미아리 산동네를 찾아가 어린 시절의 강렬한 기억을 회상한다. 유년 시절의 '나'는 눈 내린 새벽, 공용 변소에 다녀오다 실수로 세워져 있던 빠루(지렛대)를 건드린다. 이 빠루가 넘어지면서 마당에 있던 욕쟁이 할머니의 짠지 단지를 깨뜨리고 만다. 무서운 할머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던 '나'는 깨진 항아리를 숨기기 위해 그 위에 눈을 뭉쳐 커다란 눈사람을 만든다. 비밀이 탄로 날까 봐 공포에 질린 '나'는 온종일 동네 뒷골목을 배회하며 가출을 감행하지만, 결국 해 질 녘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동네는 평온했고, 눈사람과 깨진 단지는 이미 깨끗이 치워진 상태였다. '나'는 세상이 자신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낯선 소외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어머니가 나타나 '나'의 볼을 잡아 비틀며, 단지를 깨고 눈사람 속에 파묻은 넉살 좋은 짓을 누가 했겠느냐며 헛웃음을 짓는다. '나'는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현실로 돌아오며 유년의 한 고비를 넘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재개발 조합 일을 보며 이권에 밝아진 형과 대화를 나누던 '나'는 사라져가는 고향의 풍경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유년의 '검은 항아리'와 같은 비밀과 성장의 기록을 반추한다.	
핵심 인물 성격 정리	**나**	성인이 되어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며 과거의 자신과 조우하는 인물. 어린 시절의 실수와 비밀(항아리를 깬 사건)을 통해 느꼈던 '어른스러운 피로감'을 회상하며, 상실된 고향의 풍경 속에서 자아의 근원을 찾는 성찰적 인물임.
	어머니	가난한 산동네에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낸 인물. 아들의 실수를 뒤늦게 알아채고 매섭게 야단을 치면서도, 눈사람 속에 단지를 감춘 아들의 치기 어린 행동에 어이없어하며 웃어넘기는 인간미를 지닌 인물임.
	형	재개발 조합 일을 보며 현실적인 이권에 밝은 인물. 유년의 기억에 침잠하는 '나'와 달리, 고향의 철거를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물형을 대변함.

이게 전체적인 틀입니다. 이걸 가볍게 읽어보신 후, 지문을 차분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수특에 있는 상상 모의고사 이후의 지문을 수록하니 꼭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세요. 장면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해두었으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고 납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깨진 짠지 항아리를 눈 속에 파묻고 눈사람을 만들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 곧 비밀이 탄로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날 하루 동안 가출을 감행하고 좁은 뒷골목과 더러운 곳만 골라서 배회하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곤 어느덧 해 질 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아홉 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돗가에 몰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돗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 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에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담."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 자,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나'가 하는 생각은 그저 '연탄집게로 맞기 싫다'입니다. 진짜 엄청 혼날 걸 예상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나'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로 등짝 스매싱을 날릴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도, 주변 사람들도 너무 태연하고 평화로워요. 그래서 '이거 몰카인가?'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간, '아, 이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죠. 그러면서 세상이 무서워지고 무력감을 느껴요. 이렇게 '나'는 철없던 아이에서 세상의 무서움을 아는 아이가 됩니다. '나'는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에 이 소설은 '성장 소설'이에요. '성장 소설'이란 아이의 정신적 성장이 있는 소설로, 이때 '정신적 성장'이란 대부분 '삶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는다면 그걸 정신적 성장으로 보는 겁니다. '나' 또한 이러한 성장을 작품에서 '그렇게 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 딴 데는 안 들르고?"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찻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예요."

"으응, 있었지."

"거기 뭐 좀 볼 게 있어서 들어가려다 개 조심이라고 씌어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보니깐 너무 바뀌었어요. 지붕도 기와에서 슬래브로 바뀌고 마당 쪽까지 집을 새로 지어서 반지하까지 치면 이층이나 다름없대요."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억거렸다.

"형, 조합일 보면 보수는 좀 나와요?"

"돈?"

"예."

"정식으로 받는 급료는 한 푼도 없지. 하지만 나야 큰돈은 못 만지지만 청탁이 큰 이권 사업이 물렸으니 잘만 하면 떡고물깨나 묻힐 수 있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근데 너 참 아버님 틀사진 가지러 왔다며 아랫집엔 안 들를 거니?"

"그만둘까 봐요. 대낮부터 벌겋게 술도 마시고…… 또 불쑥 찾아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돈 삼만 원 건네주는 건데 엄마가 말한 대로 온라인 이용하는 게 낫죠 뭐."

"그건 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내려갈래? 지하철 타려면, 아니면, 나랑 조합 사무실에 들러서 커피나 마시며 이곳 돌아가는 얘기나 좀 듣고 가든지."

"듣긴요 뭘. 형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 줄까."

"내가 해 주긴 뭘. 네가 딱지를 팔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겠다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면 내가 아무튼 최고 시세로 되도록 다리는 놔줄 순 있겠지. 내 생각엔 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현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리저리 굴려서 분양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게 장땡인데."

"예…… 엄마가 결정을 할 거예요. 전 심부름이나 몇 번 하면 되겠죠 뭐."

- 어린 시절, '나'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깨달은 사건이 '나'에게는 퍽이나 컸나 봅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유년 시절의 동네가 재개발되는 상황에서 지인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지인은 동네 개발과 관련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나'는 이 지인과 동네 재개발과 보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인은 최대한 자기가 '나'네 집이 재개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는 시큰둥해요. 자기 동네, 자기 집 일인데 마치 주변인처럼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자기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가 자신이 살아온 공간, 자신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한 소년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 내면서, 동시에 그러한 소년 시절의 기억이 깃든 장소가 허물어지는 상황에 대한 현재적 자아의 무기력한 절망을 묘사한 작품이다. 소설 속의 어린 '나'에게 성장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주변일 뿐이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식적 충격은 성인이 된 현재의 '나'까지 이어져, '나'는 자신의 존재 기반이 되어주던 미아리 산동네가 재개발로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작품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며 성장에 대해, 그리고 기억과 공간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해법 문학 11종 현대소설』

이렇게 읽어보시고 소설 하나 털어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상모 이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